"아베 뻔뻔" 각료 신사참배 신랄하게 비판

<일본 총리>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4월28일 일본의 평화운동가 이치노베 쇼코 스님(오른쪽)을 접견하고 한일 역사문제와 종교간 교류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신재호 기자 sir501@buddhist.com

'조선침략참회기' 출판한 이치노베 스님
조계종 총무원 예방…일본 우경화 '우려'
총무원장 자승스님 "용기 있는 출판" 격려

"일본이 과거 역사를 왜곡해 하는 것은 잘못되다. 특히 조선 침략과정에 일조한 조동종의 과오를 반성해야 한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침략행위 부정 등 일본이 우경화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 일본 스님이 조동종이 일제의 조선침략 당시 저지른 만행을 파헤친 책을 내고 대신 사죄의 뜻을 밝혀 주목된다.

평화운동가이자 아오모리현 운상사 주지인 이치노베 쇼코 스님은 지난 4월22일 서울 동국대에서 간담회를 갖고 "과거 일본 침략의 잔재이 사라져 가는 현실"이라면서 "있는 사실을 기록해 후세 일본과 일본불교에 교훈으로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스님은 지난해 일본에서 발간해 화제를 모은바 있는 (조선침략참회기)의 한국어판 출간을 계기로 방한했다. 스님은 일본 우익의 행박 속에서도 일제강점기 조동종의 앞장서 있던 군사력 동국사에 '일본 조동종의 참회문'을 담은 '참사죄비'를 세우는 등 활동을 벌였다.

이날 스님은 이에 신도 일본 총리가 과거 침략 행위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스님은 "이에 수상은 공장의 변명만 앞세운 그릇 된 처신 과 부끄러움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그런 지위에서 종교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종교와 정치권력의 바람직한 관계를 묻는 질문에 단호하게 "서로 독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불교이들도 과거 역사에 무지하면 안된다"면서 "과거의 바른 위치 찾게끔 앞고, 대해도 있는 것인을 알아야 한다"고 촉언했다.

이치노베 스님은 25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국우의 세력에게 공격도 받지만 두려움 때문에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목격되고 증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날 "그동안 일제시대 관련 연구가 유 진했지지 오야 서도 건에 충분한 이해가 부족했다"며 "부처님에 참회 앞에서 지켜주기 때문에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한일 역사 문제 등으로 어려운 시점에 '조선침략참회기' 라는 책을 냈 것은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며 "한일 정부로 부터를 떠나 종교간에 화합한 역사 인식을 갖고 있어 이러 한 원활한 협력과 교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스님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상수 휴다큰 기자 sonsoo@buddhist.com

교도소 병원법당 불서보급 '앞장'

진홍원 1000권 '보시'

불기 255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대한불교진흥원(회장 이사 원장 김 일한)으로 전국 교도소 60여 곳 병원 법당 300여 곳에 만큼 불서 1000여 권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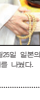
이번에 전달된 불서는 심법연구원 부설 도서출판 솔바람과 도서출판 온주사에서 발간한 (다라니의 노래), (무위심생계), (한국불교의 종홍조경려스), (나라를 구한 스님 사명대사) 등 19종으로 만원 등 전해 불교를 쉽게 설명한 불서로 구성됐다.

진홍원은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전국 사찰과 군법당, 병원법당 등에 법보시를 보시해 부처님오신날 전달했다.

허정철 기자 hjc@buddhist.com

"日 우경화 심화…독도경비대 격려했으면"

총무원장 자승스님 후경철청장에 밝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부처님오신날 이전 평화와 안보차원에서 독도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4월25일 한국불교대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이상만 경찰청장(사진)과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총무원장 스님은 "일본 우경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돼 극우파로 치우고 있다"고 걱정하며 "불교 차원에서 성명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교가 평화와 안보를 위해 독도를 방문 할 필요가 있다"며 "독도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등불 밝히고 경비대원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줬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만 경찰청장은 "총무원장 스님이 독도를 직접 방문해 경비대를 위로해주면 대원들도 위안을 얻을 것 같다"며 기뻐했다.

이한정 기자 admin@buddhist.com

봉축행사 준비하는 사람들 ⑤ 부산 대광명사

"연등 만들어 병실 밝혀요"

"20년 째 연등을 달아 봐도 매번 가슴 뛰고 뿌듯하다는 다이아모"! 부산 대광명사의 광보살 정희숙(70, 법명 광희심)씨는 올해 (올해 연등)를 달아 봉사고 있는 것은 신도들 들으라는 듯, "요즘 젊은 보살들은 환희심을 냄로 느끼지 못하니네"라고 토로는 다. 이에 정씨는 이정영(45, 법명 선견심)씨가 "오늘 처음 왔지만 입증에서 하는 것 인보단 ㅋㅋ"라고 반기를

지난 4월9일 부산 대광명사 신도들이 연등가 들리자마 연등을 만들고 있다. 이 연등은 부산지역 병원 병실과 복지시설 등에 전달된다. 이 현동은 기념사진 촬영하는 모습. 김 선 기자

'사무량심' 화원들 기동 불편하나 어려운 이웃에 전해

생활필수품에 도시락반찬도 배달

든다. 왔습간 한마음 웃음보가 터졌다. "처음엔 자시 왔에서 기도하려고 왔에 왔지만, 이제는 나의 행복을 왕아서 사람에 온다"는 권라숙(여, 법명 묘각지)씨는 "생마가 행복하려면 기에 여도, 없음 불은 보살들은 환희심을 내는 나눠 처 왔전을 가졌다.

대광명사 신도들이 이처럼 자비와 보살의 마음을 모아 만든 연등은 부처님오신날을 맞도고 부산사내 병원 입원실과 장애가 어르신들 거처에서 보살 법한다. 대광명사의 간관신명연대연 '사무량심' 화원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형편이 어려워 왔에 와서 등 하나 달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을 해아려 그들에게 직접 왔아 등을 전해준다.

봉축등에 국한되지 않는다. 큰심시에는 생활에 요긴해 쓰이는 물품을 전해주는가 하면, 도시락 반찬도 배달한다. 나이에서 인영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은 그나마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고군 분투하는 이들도 적지 않고 자기 힘이 있어도 먹의 도시락 반찬을 만들기 어려운 이들이 많다. 대광명사는 이들을 위해 도시락 반찬을 만들어 전달하고 있다.

이스라엘 신사 참배와 침략행위 부정 등 일본이 우경화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 일본 스님이 조동종이 일제의 조선침략 당시 저지른 만행을 파헤친 책을 내고 대신 사죄의 뜻을 밝혀 주목된다.

평화운동가이자 아오모리현 운상사 주지인 이치노베 쇼코 스님은 지난 4월22일 서울 동국대에서 간담회를 갖고 "과거 일본 침략의 잔재이 사라져 가는 현실"이라면서 "있는 사실을 기록해 후세 일본과 일본불교에 교훈으로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스님은 지난해 일본에서 발간해 화제를 모은바 있는 (조선침략참회기)의 한국어판 출간을 계기로 방한했다. 스님은 일본 우익의 행박 속에서도 일제강점기 조동종의 앞장서 있던 군사력 동국사에 '일본 조동종의 참회문'을 담은 '참사죄비'를 세우는 등 활동을 벌였다.

이날 스님은 이에 신도 일본 총리가 과거 침략 행위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스님은 "이에 수상은 공장의 변명만 앞세운 그릇 된 처신 과 부끄러움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그런 지위에서 종교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종교와 정치권력의 바람직한 관계를 묻는 질문에 단호하게 "서로 독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불교이들도 과거 역사에 무지하면 안된다"면서 "과거의 바른 위치 찾게끔 앞고, 대해도 있는 것인을 알아야 한다"고 촉언했다.

이치노베 스님은 25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국우의 세력에게 공격도 받지만 두려움 때문에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목격되고 증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날 "그동안 일제시대 관련 연구가 유 진했지지 오야 서도 건에 충분한 이해가 부족했다"며 "부처님에 참회 앞에서 지켜주기 때문에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한일 역사 문제 등으로 어려운 시점에 '조선침략참회기' 라는 책을 냈 것은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며 "한일 정부로 부터를 떠나 종교간에 화합한 역사 인식을 갖고 있어 이러 한 원활한 협력과 교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스님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상수 휴다큰 기자

2000만 佛子님의 호신용 MP3 산사소리
부처님 말씀을 듣고 몸에 지니면 소원성취 이룰 수 있어···
※ 중복기 무료증정 이벤트!!! (5월 1일 ~ 5월 31일 까지)

※산사소리의 기능
1. 불경듣기
2. 음악듣기
3. 라디오 듣기

광고사진의 실크기 40x70x12.5mm

국내산
부처님은 내 국내에서 탄생하고, 불경학시 국내에서 인쇄 등 모두 국내에서 만들어 진 제품

자체 제작 시스템 등록 제 9 호 국내생산 부처님을 제작 한 국내생산 부처님을 제작 한 부처님